

# 16강-8강-4강에도 '죽음의 대진' 있다

남아공월드컵 16강 진출팀이 속속 가려지면서 2라운드 대진표를 놓고 강팀과 약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후보로 꼽혔던 잉글랜드와 독일은 8강 길목에서 서로 만나는 죽음의 대진표를 받고 한 숨을 내쉬었다.

반면 한국과 우루과이, 미국, 가나 등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된 팀은 2라운드에 함께 묶여 4강 길목이 한결 수월하다는 관측이다.

월드컵 3회 우승국인 독일은 이번 대회 D조 1위로 16강에 진출해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구성된 C조 2위 잉글랜드와 문명의 한 판을 치게 된다.

16강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져 지는 팀은 곧바로 집에 돌아갈 짐을 싸야 한다. 잉글랜드와 독일은 유럽의 라이벌이라 접전이 예상된다. 통산 27번 치러진 A매치에서 두 나라는 나란히 12번씩 이겨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3번은 무승부였다.

## 유럽-남미 강호들 16강부터 결승같은 혈투 '울상'

## 한국, 우루과이·미·가나 등과 2라운드 편성 '수월'

월드컵 본선만 따진다면 독일이 2승1무1패로 잉글랜드에 앞서 있다. 하지만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 결승에서 독일은 잉글랜드와 연장전까지 갔으나 심판의 석연치 않은 골 관정으로 2-4로 지면서 우승컵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해 이번 대회에서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독일-잉글랜드 경기의 승자는 8강에서 리오넬 메시가 버틴 아르헨티나와 만날 가능성이 커 우승으로 가는 과정이 온통 가시밭길이다.

브라질,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다른 우승 후보국들도 16강에서 만

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 조별리그 G조에서는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이 이미 2승을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확정했으며 포르투갈도 이번이 없는 한 조 2위 안에 들게 된다.

이 중 한 팀은 16강에서 프리메라리가 최고 선수로 대표표를 꾸린 H조 스페인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1승1패로 H조 2위인 스페인은 조별리그 칠레와 3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판가름난다.

만약 브라질이 스페인과 맞붙는다면 미리 보는 결승전이나 다름없으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격돌해도 이베리아 반도의 축구 강

국거리 싸움이라 선블리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 E조 1위로 남은 조별리그 3차전 결과에 관계없이 16강이 확정된 네덜란드(2승)도 F조 이탈리아(2무)가 16강에 올라온다면 유럽 강팀 간 또 다른 빅매치도 예상된다.

유럽과 남미의 우승 후보들이 앞으로 매 경기 사투를 벌여야 하지만 한국과 미국 등 일부 16강 진출국은 온 좋게 중량급 국가를 피했다.

B조 2위 한국은 A조 1위 우루과이, C조 1위 미국은 D조 2위 가나와 16강에서 대결한다. 그리고 이 경기의 승자들끼리 8강에서 맞붙어 4강 진출권을 가린다.

AFP통신은 "축구 전문가들은 우루과이, 한국, 미국, 가나가 이번 대회 4강에 진출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그렇지만 24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4팀 중 한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됐다"고 운 좋은 팀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24일(한국시간) 남아공 월드컵 C조 3차전 잉글랜드-슬로베니아 경기가 열린 벨스 맨델레비 스타디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 16강행 티켓 '운에 웃고 운에 울고'

## 미국 극적인 결승골에 슬로베니아 탈락

## 한국도 아르헨티나 그리스 잡아준 덕에 통과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연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서 간발의 차이로 16강 진출 여부가 갈리는 일이 속속 나오고 있다.

평범한 상황에서 터진 극적인 골 한 방으로 16강에 나가는 팀이 나오는 반면 다 잡은 16강 티켓을 눈앞에서 날리는 경우도 있다.

월드컵에서 16강에 초대받으려면 실력을 뛰어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어느 정도 작용해야 하는 셈이다.

24일(한국시간) 미국과 알제리의 조별리그 C조 3차전 인저리타인, 90분동안 두

팀이 혈투를 펼쳤으나 득점 없이 0-0으로 맞서고 있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2차전까지 승점 4점을 쟁긴 슬로베니아가 잉글랜드에 지더라도 16강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추가 시간 1분이 지날 무렵 미국에 기적적인 골이 생겼다. 랜던 도너번이 상대 문전에서 혼전이 일어난 틈을 이용해 천금같은 행운의 결승골을 뽑았다.

16강 진출의 꿈에 부풀었던 슬로베니아는 졸지에 조 3위가 되면서 탈락하고 말았다. 승점 5점을 확보한 미국은 잉글랜드에 다득점에서 앞서 조 1위로 16강에 나갔다.

D조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다. 2차전까지 승점 4점을 얻은 가나는 3차전에서 독일이 0-1로 패했지만 승점 3점의 세르비아가 호주에 1-2로 탈미를 잡히는 바람에 16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호주와 승점이 같아진 가나는 골 득실에서 앞서 조 2위를 차지했다. 가나의 득실차는 0이고 호주는 -3이었다. 반면 2차전에서 독일이 1-0으로 제압하며 상승세를 탄 세르비아는 막판에 눈물을 흘렸다. 만만한 호주를 무난하게 이기고 16강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깝게 패하고 말았다. /연합뉴스

A조에서도 조 2위와 3위의 승점이 같아서 골 득실까지 따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멕시코는 3차전에서 우루과이에 0-1로 패했지만 2차전 프랑스와 경기에서 2-0으로 여유 있게 승리해 덕분에 3위 남아공에 골 득실에서 앞설 수 있었다.

B조의 한국도 16강에 오를 때 실력 이외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조 1위 아르헨티나가 그리스를 2-0으로 확실하게 잡아준 덕에 골 득실차를 따질 필요 없이 1회전을 통과할 수 있었다.

## 11승 무산 KIA 양현종, 덕아웃 못 떠난 사연?

지난 23일 KIA 타이거즈는 위기 때마다 팀의 연패를 끊던 에이스 양현종을 내리고 넥센 히어로즈에게 9회 역전패를 당했다.

양현종은 넥센 타선을 3피안타 1실점으로 막은 뒤 7회 무사 1-2무의 상황에서 교체됐다. 유격수 김선빈의 실책과 불넷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2-0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승리투수로

진을 갖춰다.

팀의 든든한 에이스로 거듭난 양현종이 연패에 빠진 팀을 또다시 구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운드를 물려받은 손영민이 9회초 강정호에게 역전 투런포를 허용하면서 KIA는 5연패에 빠졌다.

이날 양현종의 각오는 남달랐다. 선배 윤석민의 '자해', 김동제 수비코치의

의 입원, 충격의 4연패 등 악재를 한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각오였다. 지난 주말 SK에게 충격적인 3연패를 당하는 동안 함께 마운드를 지키던 선배 윤석민이 화를 참지 못하고 락커를 내려쳐 새끼 손가락이 부러졌다. 김동제 수비 코치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대선배 이대진의 복귀를 바라며 45번을

새긴 모자를 쓰고 출전해온 양현종은 윤석민의 백넘버 28번과 김동제 코치의 87번도 적어 넣고 마운드에 올랐다.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공 하나 하나에 혼신의 힘이 담겼다. 때 마침 간베 전 투수 코치가 관망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김 코치의 병문안을 위해 입국한 간베 코치는 심장 이상으로 팀을 떠났지만 글러브를 선물로 보내준 정도로 양현종을 아꼈다.

경기는 역전패로 끝났다. 양현종은 한동안 덕아웃을 떠나지 못했다. 덕아웃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외국 베팅업체들 "우루과이 우세" 점쳐

외국 주요 베팅업체들은 한국과 우루과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16강전에서 우루과이가 우세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리엄 힐은 24일 오전 현재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의 배당률에서 우루과이 승리에 2/5, 한국 승리에 7/4를 내걸어 우루과이가 8강에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멕시코 경기 배당률을 보면 아르헨티나가 2/9, 멕시코는 3/1로 아르헨티나 승리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한국이 만

일 우루과이를 꺾으면 8강에서 맞붙게 되는 미국-가나의 경기는 미국 4/6, 가나 11/10으로 미국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했다. 또 16강 '빅 카드'로 꼽히는 독일-잉글랜드는 독일 승리 10/11, 잉글랜드 승리 5/6으로 초접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레드브룩스도 상황은 비슷했다. 우루과이 승리가 5/6, 한국은 7/2로 예상됐고 미국-가나는 똑같이 13/8로 팽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독하게 배워 한권으로 급수판다!**

한자능력검정시험 | 완 | 벽 | 대 | 비 |

**진검승부**

진짜 한자능력검정시험 공부

■ 한자급수취득, 학교시험, 입학시험, 취업면접, 승진시험 완벽대비!  
 ■ 중국어, 일본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자 필수 지침서!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급수 한자 제대로 끝내기!

진검승부 한자능력검정시험 시리즈는...  
 깔끔한 편집으로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급수별 한자색인과 다양한 활용단어를 실어 배경지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성문제를 통해 최근 기술문제의 성향과 학습 성취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손에 꼭 들이오는 포켓형 시리즈 값 1~2급 8,000원 | 3~4급 7,000원 | 5~8급 6,000원

대능출판은 광주인사예비교육연구소가 즐겁게,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자에 한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31) 967-009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daeneungedu.com

**법률경제전문법인 한미음법률경제(주)**

\*지역별,평행별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원하시는 물건을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 위치 : 광주의 잔디밭 4층 062) 525-8880 010-8640-3990

지역	소지자	건물㎡	감평가	최자가	비고
광안구	동문동	274/128	4천	1천4백	단층
	월곡동	556/108	4천4백	2천4백	단층
	안남동	149/89	3천2백	2천2백	단층
남구	서동	127/119	1천2백	8천4백	2층
	진동	332/802	4천4백	3천2백	1층상가,1층주택
	대동	271/129	2천4백	7천4백	단층
북구	지동	211/118	1천4백	8천4백	단층
	양동	342/139	1천4백	1천4백	단층
	월곡동	330/235	2천4백	1천4백	2층
유동	유동	132/185	1천4백	6천4백	2층
	유동	214/89	1천4백	6천4백	단층
	유동	205/325	3천4백	2천4백	1층상가,1층주택
서구	월곡동	118/89	7천4백	5천4백	단층
	월곡동	488/154	8천	5천4백	단층
	지동	211/118	1천4백	7천4백	2층건물
곡성군	북서동	929/413	1천	7천	단층
	안남동	165/90	2천4백	8천	단층
	안남동	1008/284	7천4백	5천4백	주거및상가
나주시	안남동	1405/278	1천4백	2천4백	주거및상가
	안남동	578/108	1천4백	6천4백	단층
	안남동	1405/278	1천4백	2천4백	주거및상가
영광군	안남동	148/167	1천4백	7천4백	2층건물
	안남동	813/114	2천4백	1천4백	단층
	안남동	1124/182	3천4백	2천4백	1층상가,1층주택
화순군	안남동	1124/182	3천4백	2천4백	1층상가,1층주택
	안남동	1471/782	3천4백	1천4백	주거및상가
	안남동	3136/990	4천4백	3천4백	주거및상가
함평군	안남동	4682/1870	22천4백	7천4백	주거및상가
	안남동	873/235	1천4백	1천4백	주거및상가
	안남동	6377/1322	6천4백	3천4백	주거및상가
함평군	안남동	5533/1832	5천4백	3천4백	주거및상가
	안남동	1452/548	2천4백	1천4백	주거및상가
	안남동	1452/548	2천4백	1천4백	주거및상가

경매 ※내집마련,채테크 지금이 기회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믿을 수 있는 전문회사와 상담하십시오-